

# 45<sup>회</sup>

---

문화·예술 분야

## News Clipping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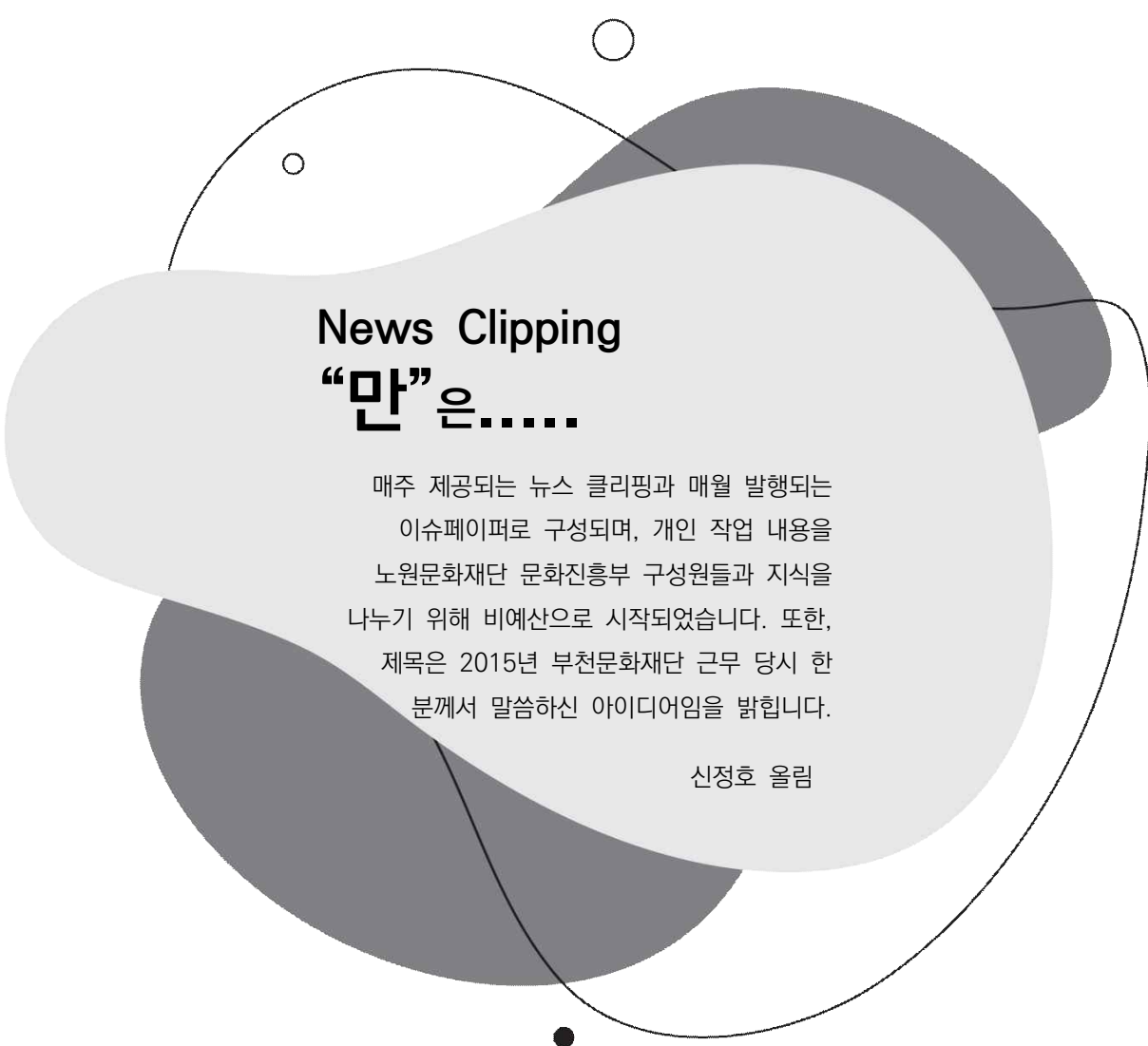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2026.03.03.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 2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 9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 16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 23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 30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 35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 37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 40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 45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 50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 55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 59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 63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 68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72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 77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 81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85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 89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 94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 99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 103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 107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	111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	115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	119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	123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	127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	131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	135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	139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	143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	147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	150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	153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	156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	159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161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	164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	166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	169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	171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	173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	175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	177

(제45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지난주 10대 핵심 키워드**

- ① 광역·초광역 연계 ② 생산성 중심 문화정책 ③ 지역소멸·관계인구 ④ 문화자산화·사회적금융  
 ⑤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⑥ 서울 집중과 글로벌 전환 ⑦ 청년·로컬 창업 생태계  
 ⑧ 대형 인프라 vs 운영 지속성 ⑨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 위험 ⑩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재설계

■ **주요 쟁점들**

① **광역 전략 강화 vs 기초 실행력 약화 → 전략-실행 간 정합성 문제**

초광역 문화권 구축, 도시공간 재편, 산단 혁신 등 상위 전략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기초 단위의 운영 역량, 인력, 예산 자율성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 광역은 전략을 설계하지만 실행 부담은 기초에 집중, 예산·권한·책임의 불일치, 시설 건립은 확대되나 운영 설계는 후순위

② **관광 성과 확대 vs 지역 환류 구조 미흡 → 지역 환류 구조 미흡**

양구 사례처럼 방문객은 증가하지만, 카드 사용액의 절반이 외지 소비에 머무는 구조는 지역경제 환류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서울 80% 관광객 집중 현상도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 방문객 수 중심 평가, 체류는 늘지만 정주·관계인구로 연결되지 않음, 지역 상권·지역 예술인과의 연계 부족

③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vs 창작 기반 취약 → ‘유입 산업’에서 ‘정착 구조’로의 전환 필요**

140억 달러 수출, 공연 1회 1조 원 효과 등 산업 외연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예술 생태계는 단년 지원, 청년 유출, 중견 단절, 예술활동증명 논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 산업 확장과 지역 창작 기반의 분리, 대형 아레나 경쟁 속 중소 공연장 생태계 위축, 장르 편중 심화(뮤지컬 쏠림)

④ **자산화·사회적금융 확대 vs 공공 거버넌스 미정립 → 신뢰 기반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지역 자산화, 사회적금융(I-SEIF), 기부 플랫폼, 메세나 확대 등 자원 다변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화재단 인선 논란, 운영 혼선, 직원 해고 위기 등은 공공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 재정 다변화는 확대되나 책임 구조 불명확,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 논란, 정책 책임은 상층, 부담은 현장

⑤ **인구·가구 구조 전환 vs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한계 → 기초 단위 협업형 실행 모델로 전환 필요**

출산율 반등은 제한적이고, 1인가구 35% 시대가 도래했다.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은 정주 기반 강화 전략으로 부상하지만, 광역센터 중심 전달 구조는 기초 실행력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 중앙-광역-기초 체계의 형식화, 기초 단위 주도권 약화, 사업 전달 중심 구조

■ **정책적 시사점**

2026년 문화정책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정렬’이다. 광역 전략과 산업화, 관광 확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 생태계와 실행 구조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의 완성이다.** 건립보다 운영, 방문객 수보다 체류와 환류, 단년 사업보다 생태계 설계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건립 중심 → 운영 중심 체계 전환	시설 준공 이후 3~5년 운영 계획 의무화, 운영자원·전문 인력·중소시설 생태계 연계 설계
방문객 지표 → 체류·환류 지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율·지역 상권 기여도, 지역 예술인 참여 비율·지역 소비 전환율
단년 지원 → 다년도 생태계 전략	최소 2~3년 보장형 지원, 통합 아카이브 구축, 국제시장 연계형 성장 사다리
광역·기초 거버넌스 재설계	권한·책임·예산의 일치, 공동 설계·공동 운영 모델 제도화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구조 혁신	기초 단위 전담조직 강화, 광역은 조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

##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문화정책은 광역 확장과 산업 성과, 관광 성장의 흐름 속에서도 그것이 기초 단위 실행 구조와 지역 생태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건립과 방문객 수 같은 외형적 확대를 넘어, 권한·예산·운영 체계를 재정렬하는 구조의 완성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 ○ 광역·초광역 연계로 문화·공간 재편...균형발전형 도시전환 가속

- 김영록 전남지사 "금남로, 더 큰 문화거리 조성"(드림투데이, 2026. 02.21.)
  - 김영록 지사 금남로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 조성...ACC 중심 1+5 광역문화권 구축(나주 목표, 여수, 순천, 광양 등)·국비 70% 확대 추진
- "광역도시계획은 공간계획 중심, 초광역권계획은 연계와 협력 중심의 균형발전 집중해야"(건축사신문, 2026. 02.19.)
  - 국토연 일본·美 SGAG 사례 들어 광역도시계획 법적구속력·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제안
- 경남연구원, 포르투·바르셀로나 도시전환 사례 분석... 경남 미래 도시공간 전환 전략 제시(파이낸셜경제, 2026. 02.23.)
  - 포르투 수변·항만 재생,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도입 참고해 경남 보행중심·산단 혁신공간 전환 제안

## ○ 지역소멸, 지역재생

- '한반도섬에 14만명' 양구 관광문화시설 입장객 14% 늘었다(강원일보, 2026. 02.23.)
  - 양구 관광문화시설 입장객 48만 3천명, 전년 대비 14% 증가...한반도섬·DMZ 관광이 견인
- 강원 인구감소지역 카드사용액 절반 외지인이 썼다(강원일보, 2026. 02.24.)
  - 지난해 3분기 강원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417만명, 등록인구의 8.8배...카드사용액 48.6% 차지

## ○ 역 자산화와 문화콘텐츠 효과로 '마을 기반 지역재생' 움직임

- 지역 소멸을 넘어 '마을의 시대' 여는 지역 자산화(한겨레, 2026. 02.27.)
  - 민간위탁 12.7조 구조 전환, I-SEIF·지자체 기금 등 사회적금융으로 지역공간·시설 시민 자산화 추진 필요
- [기원상컬럼] 문화는 지역을 살린다 - 영화 한 편이 만든 영월의 변화(아주경제, 2026. 02.28.)
  - 영화 '왕과 시는 남자' 흥행 후 영월 창령포 1만641명(5배)·장릉 7개↑, 고행시탕기부 100만원·반지의제왕·해리포터처럼 지역자산화

## ○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지속가능성은 '존중'과 글로벌 감수성에 달려 있어

- K콘텐츠 2024년 기준 역대 최대 140억 달러 수출(YTN, 2026. 02.27.)
  - 게임 131.5억달러 등 K콘텐츠 수출 140.7억달러 역대 최대, 종사자 68.8만명 확대
- 공연 한 번에 1.2兆 효과... 'BTS 노믹스'가 온다(문화일보, 2026. 02.25.)
  - BTS 34개 도시 79회 투어, 500만 관객·직접매출 2조·공연 1회당 1.2조 파급...관광·숙박 급등 'BTS노믹스' 본격화
- K콘텐츠, '존중'없는 성공은 위태롭다[최현미의 시론](문화일보, 2026. 02.25.)
  - K콘텐츠 성공 속 동남아 반발...존중·다문화 감수성 필요

## ○ 외래객 3천만 시대, 서울 집중을 넘어 'K-글로벌 관광 생태계'로 전환

-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 육성안 모색(강원도민일보, 2026. 02.25.)
  - 대통령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3,000만명 목표로 범부처 협업 통해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 李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80% 서울 편중... 지방 중심 대전환 필요"(인사이트, 2026. 02.25.)
  - 외국인 80% 서울 집중 지적...1,900만 관광객 기반, 지역분산·인프라 개선 추진
- K-뷰티, '강남 성형'에서 '골목 여행' 되려면(쿠키뉴스, 2026. 02.23.)
  - 117만 의료관광 시대, 골목 상권 살릴 공공 큐레이션·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제안
- 통영서 찾은 'K-글로벌 상권' 해법...지역문화 입힌 상권 실험 본격화(해럴드경제, 2026. 02.24.)
  - 통영 글로벌상권 K-문화·관광 결합 민간주도 모델 확산...중기부 현장점검 및 전국 확대 추진
- "K팝 다음은 이것"...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신전략 꺼냈다(이데일리, 2026. 02.24.)
  - 서울관광재단 외국인 1500만 돌파 속 예술관광·BTS·LAFc 협업으로 '질적 성장' 전략 전환

- **‘모두의 창업’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까지…국가·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생태계 전환 본격화**
  - 2026 글로벌 청년창업 생태계 정밀 분석: 주요국 대비 한국의 정량적 현주소와 질적 전환 과제.(KBR, 2026. 02.24.)
    - 한국 청년창업은 20~39세 신규 창업 비율 5~7%로 OECD 평균보다 낮고, 2025년 창업 수는 전년 대비 약 4.5% 감소했으나 청년 창업자의 60% 이상이 기회추구형 동기를 보이며 질적 전환이 진행 중
  -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통합 전략' 만든다…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뉴스1, 2026. 02.26.)
    - 연구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제주형 비전·전략 수립, 단계별 실행계획과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 예정
  - 인천시, 청년창업·일자리·소공인 맞춤 금융지원…특례보증 375억 지원(인천뉴스, 2026. 02.24.)
    - 총 375억 규모 특례보증…1,200개사에 연 1.5~2% 이자 지원
  - 공실 가득했던 흥성 원도심, 청년 창업자립거점 되다.(흥주포커스, 2026. 02.25.)
    - 흥성 민간 주도 로컬스타트업빌리지 원도심 공실 0% 민간주도 청년창업 거점으로 안착
  - 마곡미술길, 건대입구청춘대로…서울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연합뉴스, 2026. 02.24.)
    - 서울시 마곡미술길·건대입구청춘대로 등 5개 상권서 19~39세 청년 24명 선발, 최대 3천만원 지원
- **집행 부진 속 기한 도래…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구조 재정비와 5년 연장 요구**
  - '예산 집행률 32%'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5년 연장해야"(뉴스핌, 2026. 02.23.)
    - 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국비 집행률 32%에 그쳐 2028년 종료 앞두고 5년 연장·예산 확보 필요 제기
-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도전…문화·관광·산업 연계 도시브랜딩 본격화**
  -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 본격 추진(국민일보, 2026. 02.22.)
    -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 추진…문화·관광·산업 연계 전략 본격화
- **문화지구, 문화마을, 문화의거리**
  - 건물 1층에 미용실·노래방…대학로, '머무는 공간' 거듭난다(이데일리, 2026. 02.23.)
    - 대학로 문화지구 10년 만 규제완화 추진, 미용실·노래방 등 허용해 '머무는 문화공간' 전환 검토
  - 동해 묵호감성마을, 예술인이 머물고 전시하는 문화마을로 뜬다(강원도민일보, 2026. 02.23.)
    - 동해 묵호감성마을 예술인 6명 한달살기·1팀 갤러리 입주…2027년 3월까지 체류형 문화거점 운영
  - 당신 결의 예술, 2026년 대구아트웨이 운영 개시(칠성고라이프, 2026. 02.24.)
    - 대구아트웨이 쇼룸·공방 16팀 운영…체험 1,667건·판매 5,647건 성과 기반 전시·유통 거점 강화
- **청년 유출·단년 지원 한계…지역 예술 생태계, 다년도·인재·기록 기반 재설계 필요**
  - 청년 사라지고, 중견 무너지고…대구 예술인의 대(代)가 끊어진다(영남일보, 2026. 02.22.)
    - 대구 예술인 "신작 초연 중심 단년 지원 한계"…청년 유출·중견 사각, 지속가능 창작 시스템 절실
  - "문화예술의 토대를 되살린다"는 말의 정책적 무게(문화오늘, 2026. 02.18.)
    - 문화예술 토대 복원 위해 추경·인력확충·다년도 예산체계 필요
  - 강원 연극 100년 전략, 기록·인재·관광이 있는 생태계(뉴스핌, 2026. 02.26.)
    - 도립극단-민간 극단 연계 통합아카이브·청년정착·공연관광을 10개년 거버넌스로 묶어 생태계 구축
- **지역 예술인 '성장 사다리' 재설계…국제시장·다년도 지원·공정한 복지 기준 정비 필요**
  - [기고] 지역 예술인을 살리는 법(매일경제, 2026. 02.25.)
    - 지역 예술인 정착 위해선 국내 중양 의존보다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 문화교류 확대가 필요
  - 'K-아트' 지원사업 시범 운영…지역 청년 예술인 '성장 사다리' 될까(전북일보, 2026. 02.23.)
    - 만39세 이하 3,000명에 연 900만원 지원, 단년도 한계 보완(최대 2년 보장) 시도
  - AI '딸깍' 하면 예술인 복지 대상자?…'N수의 늘' 예술활동증명 빈틈(여성신문, 2026. 02.25.)
    - 예술활동증명 기준 모호…AI 통과(AI음원 제출 등)·인간 탈락 논란, 복지 사각지대 확대
- **지역 문화정책 공공예산은 쓰지만 지역 예술인은 배제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경남신문, 2026. 02.25.)

- 연면적 1만㎡ 의무설치 제도, 수도권·외부 작가 쏠림...지역 작가 우선·공개공모 확대 촉구
-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시립예술단...지역 예술인 채용 소극적(충청투데이, 2026. 02.26.)
  - 대전시립예술단 5년간 채용 42명 중 5명만 지역...고용할당제 요구 확산
- 정책 결정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과 피해는 현장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
  - 720억 들여 한국판 테이트모던 짓는다더니...직원들은 줄해고?(한국경제, 2026. 02.23.)
    - 720억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 주체 혼선·재단 해체 검토 속 인사 논란과 직원 해고 위기
- 산단 재생과 청년 공예 육성 결합...권역별 창작 인프라 구축 본격화
  - 경남도, 창원 산단에 청년 공예 창작거점 본격 가동(뉴스타운, 2026. 02.25.)
    - 창원 산단에 15억 투입 청년 금속공예 거점 개소, 3개 권역 인프라 완성
- 지역 생산성·일자리·생활인프라 격차가 인구 이동을 좌우...거점도시 중심 구조 재편 시급
  - 영국 사례로 보는 지역 불균형 원인...“지역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시급”(국제신문, 2026. 02.17.)
    - 영국 사례처럼 지역 생산성 격차가 소득·부 격차를 키워 상위·하위 소득 3.9배, 런던(29%) 대비 지방 8대 도시 합계 20%에 그쳐...한국도 거점도시 신산업·교통 인프라 집중으로 생산성부터 해소 필요
  - 1월 국내이동통계, 이동자 수 56.8만 명...이동률 1.4%p 증가(every news, 2026. 02.25.)
    - 1월 이동자 56.8만명(전년比 8.2% ↑), 이동률 13.1%...경기·인천 순유입, 경북·광주·부산 순유출
  - (지방소멸①) 지방소멸의 시대, 그러나 어떤 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다(환경감시일보, 2026. 02.25.)
    - 전국 인구는 줄지만 229개 중 63곳은 증가·진천군처럼 일자리·주거·교통·생활환경 4축을 장기 설계한 지역은 인구 늘어
- 대형 문화인프라 투자, 운영계획·중소공연장 생태계 재설계가 관건
  - “공주시 문화정책 전면 점검” 1편. 공주문예회관 180억 리모델링...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가(투데이충남, 2026. 02.23.)
    - 공주의회 문예회관 180억(도·시비 각 90억) 리모델링...운영계획 공개 요구
  - 흥대 앞 18년 마감 벨로주 인터뷰 “5만 석 아레나보다 천 석 공연장을”(한겨레21, 2026. 02.28.)
    - 흥대 벨로주 18년 마감...대형 아레나보다 중소 공연장 확충 시급
- 문화향유 편중 심화, 뮤지컬 쏠림 속 지역 장르 생태계 위축
  - 울산시민 인기공연 지갑열지만...99% 원정관람(경상일보, 2026. 02.26.)
    - 지역 공연 관객의 63%가 뮤지컬에 집중, 클래식 10%·무용 4%·국악 1%에 그쳐 장르 편중 심화
- 대형화 열풍 속 장르 실험과 안전·전문성 기반 재정립 필요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주년의 저력...박스오피스 1위(뉴스핌, 2026. 02.26.)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주년, 티켓 159% ↑...KOPIS 뮤지컬 1위
  - 듣는 연극, 색다른 감동이 보인다(동아일보, 2026. 02.26.)
    - 국립극단이 '모노텔' 등 창작회극 공모 수상작 3편을 26~28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조명·음악을 갖춘 낭독공연으로 선보여
  -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거대함 숭배, 위험한 전문가들(부산일보사, 2026. 02.26.)
    - 5만~7만석 아레나 건립 경쟁 속 무대전문인력 부족·안전 부재 지적, 상시 무대감독 제도화 촉구
- 부스비 폐지·티켓 수익 전환...아트페어 수익모델 재편 실험
  - “부스비 안 받는다”...하이브, 아트페어 판 흔드나(뉴시스, 2026. 02.26.)
    - 하이브아트페어(5.21~24 코엑스 마곡) 부스비 전면 폐지, 티켓 3~10만원·50여 갤러리 참여로 새 수익모델 실험
- 대형·몰입형 전시로 관람객 흡인, 콘텐츠 기획력이 성패 좌우
  - 최후의 만찬 모작 보려고... 50만명 다녀간 日 미술관(조선일보, 2026. 02.28.)
    - 오츠카 국제 미술관 4,000억 투입·연면적 3만㎡ 지하형 설계, 160개 미술관 1000점 도판 재현(시스티나홀·최후의 만찬 복원 전후 동시 전시)으로 연 50만명 방문

- '지구 훼손의 참담함' 예술로 승화시킨 웅장한 전시(조선일보, 2026. 02.27.)
  - 서울역사박물관 '버티스키 추출/추상'전, 광산·폐기물 등 **산업현장 대형사진으로 지원 추출의 환경훼손을 추상미학으로 고발**

### ○ 양적 팽창 vs 체감 성과 한계...지역축제 구조 재설계 과제

- 3천억 넘게 벌어들였다는 국내 겨울 축제 5곳 실제 방문해 보니(매일경제, 2026. 02.22.)
  - 이상고온에도 겨울축제 5곳 흥행, 320만 방문·경제효과 3천억 ↑ ...화천 3,051억 규모
- '10억 넘는 대형 축제' 2배 늘었지만...주민은 외면, 방문객 지갑은 닫혔다(헤럴드경제, 2026. 02.26.)
  - 축제 1,214개로 **37% 늘었지만 주민참여율 8.6%p ↓** 10억 이상 대형 축제 2배 늘었지만 방문객 **1인당 지출은 0%대 정체**

### ○ 디지털 기부·메세나 확대...지역 문화재원 다변화 본격

- 팽택시문화재단, 기부도 '스마트'하게... 터치 한 번으로 완성하는 문화 나눔(기부타임즈, 2026. 02.23.)
  - 팽택시문화재단 터치형 기부 키오스크 도입...공연 감동을 즉시 나눔으로 연결
- 인천메세나협회 설립총회 개최...문화예술·경제 상생 본격화(PAX경제TV, 2026. 02.26.)
  - 인천메세나협회 26일 설립총회...문화예술 발굴·기업연계·청년자립·포럼 정례회 추진

### ○ AI 의존 시대, 읽기·쓰기 주체성 회복이 과제

- 쓰지 않고 책 저자 됐다? AI 소비자일 뿐(한겨레 21, 2026. 02.12.)
  - AI에 읽기·쓰기를 외주화하면 '저자' 아닌 소비자...교실은 다시 읽고 쓰게 해야
- 'AI 앵무새' 시대, '결론적으로' 당신의 쓰기는 안녕하신가요(한겨레 21, 2026. 02.25.)
  - AI 의존 속 대학 글쓰기 위기, 자기 언어 회복 필요

### ○ 애니·피규어 소비 확산, 키덜트 상권이 도심 유통 중심으로 부상

- 마니아의 공간에서 도심 상권의 중심으로... '애니 성지'의 부상 (시사저널, 2026. 02.23.)
  - 점프샵 팝업 하루 매출 1억·1,600명 방문...애니 굿즈 소비, 백화점·복합몰 핵심 상권으로 확장
- 문구완구거리가 '피규어 맛집'으로?...키덜트 발길 이어져(위클리서울, 2026. 02.26.)
  -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피규어 인기 속 2030 키덜트 상권으로 부상**

### ○ 광역 전략 고도화와 서울 23번째 기초 재단 출범

- 서울문화재단, '글로벌 문화도시' 만든다...10대 과제 발표'(머니투데이, 2026. 02.26.)
  - 3대 전략 기반 10대 과제로 청년 1천명 지원·창작·창업 인큐베이션 강화
- 용산문화재단 3월3일 출범, 국제업무지구 개발 연계 문화정책 총괄·무장애 문화복합공간 운영(뉴스1, 2026. 02.27.)
  - 용산문화재단 3월3일 출범, 국제업무지구 개발 연계 문화정책 총괄·무장애 문화복합공간 운영

### ○ 문화재단 수장 인선 엇갈린 행보...전문성 강화와 인사 신뢰 논란 교차

- 하남, 문화재단 대표 이교욱 최종합격'(e시티뉴스, 2026. 02.24.)
  - 이교욱(62) 전 KBS PD, 하남문화재단 대표 내달 초 임명 예정
- '버린 카드, 다시 주워 키운' 조용익 시장...문화재단 '배신감' 증폭(부천매일, 2026. 02.25.)
  - 2024년 '연임 불가' 결정으로 퇴임했던 전 문화예술본부장 K씨를 1년 4개월 만에 경영본부장이자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재선임해 문화재단 내부에서 인사 모순과 정치적 의혹

### ○ 6.3 지방선거 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도시 대전환' 공약 경쟁

- "수원의 문을 세계로 활짝"... 이재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선언(OhmyNews, 2026. 02.24.)
  - 수원 2026~2027 방문의 해 선포...연 1,500만 관광객 목표, K컬처 기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5대 전략 가동
- 전북자치도, 문화가 산업과 경제를 잇는 K-컬처의 심장으로 만든다(전북도민일보, 2026. 02.25.)
  - 문화산업지구 2곳 이상 지정·200억 펀드 조성, 웰니스 30곳·국제대회 100건 유치로 K-컬처 산업·관광 선순환 구축
- 허태정 "문화예산 파격적 확대"(굿모닝충청, 2026. 02.26.)
  - 대전시장 예비후보 연극지원금 1000→2000만원 인상·청년적금·홍보위탁 도입

- 안산의 체질을 바꾸는 제3의 도약, 바닷가 뮤지엄 도시로 시작한다(이로운넷, 2026. 02.27.)
  - 안산 대부도 '바닷가 뮤지엄'·해양생태 예술 상설화로 문화도시 전환

### ○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봄, 문화·관광 일정 재설계의 시기

- "올봄 꽃구경 서두르세요!"... 올해 '봄꽃 개화 지도' 보니(인사이트, 2026. 02.25.)
  - 전국 봄꽃 만개 시기, 생강나무 3월26일·진달래 4월3일·벚꽃 4월7일로 예년보다 앞당겨질 전망

### ○ 인구·가구 구조 전환 속,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재설계와 실행체계 전환

#### ☞ 저출생 반등의 착시와 가구 재편, 분절된 돌봄...개인 단위 사회안전망 전환 시급

- 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찍었다...출생아 증가 대부분 '첫째'(뉴시스, 2026. 02.25.)
  - 2025년 출생아 25만4500명(+6.8%)·출산율 0.80(+0.05)로 2년 반등했지만, 첫째 중심(62.4%)
- 40년 만에 대한민국 가구가 통째로 바뀌었다(디지털타임즈, 2026. 02.26.)
  - 1980년 대비 가구 2.8배·인구 1.4배↑, 1인가구 35%...주택 소형화·개인단위 복지·고령 독거 돌봄 강화
- 통합되지 않은 '통합돌봄 서비스' 갈길이 멀다(헬스경향, 2026. 02.26.)
  - 3월 시행 통합돌봄, 인식 50% 미만...창구 가시성·상담인력·정보개선 시급

#### ☞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 정주·관계인구 확대의 전략으로 부상

- 삶 가까이의 문화예술, 인구위기와 사회변동 극복의 해법(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6. 02.23.)
  -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으로 인구위기 대응, 정주·관계인구 확대 전략
- '마을마다 즐거움이 넘친다'...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19.)
  - 기초문화재단 40곳 '가갸호호' 운영...문체부, 가족·농촌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 공모

#### ☞ 현재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전달·운영 구조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참여 시설 모집(더팩트, 2026. 02.25.)
  - 경기문화재단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연계 현장역량 강화 지원
- 광주광역시문화예술교육지원 5개 사업 통합 공모(KJA뉴스통신, 2026. 02.11.)
  - 광주문화재단 8.5억 규모 5개 사업(예술시민·창의예술학교·생애전환·유아·교육사) 통합공모

#### ☞ 광역-기초가 연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역량과 실행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 김상희 의원, '문화예술교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광진닷컴, 2026. 02.26.)
    - 광진구 문화예술교육 확대 간담회...민간재원 연계·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추진
  - "문화자치시대 서귀포시, 책임과 권한 '기초 문화예술' 전담조직 필요"(헤드라인제주, 2024. 11.03.)
    - 서귀포는 광역 단일체제 한계로 문화격차가 커 기초 전담조직(지역본부·기초재단)을 두고, 권한·책임·예산 을 기초로 내려 문화자치 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 부산 금정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뉴스1, 2026. 02.23.)
    - 금정구 기초예술단체 3팀 내외 모집...'흥나는 금정' 3~11월 20회 이상 교육, 강사비·공간 지원
  - 담양문화재단,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지원 설명회(도민일보, 2026. 02.23.)
    - 담양문화재단 5개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 2010년대 초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양적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에 집중했고, 2014년 이후에는 광역센터 중심의 중앙-광역-기초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기초문화예술교육 기반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단순한 사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 단위가 주체가 되는 협업 구조와 실질적 실행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예술로 배우고 삶으로 누리다] ⑩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인천일보, 2025. 11.23.)
    -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기초문화재단과 구조적·실행형 협력을 추진, 핵심은 '예산 지원' 이 아니라 조사·계획·현장사업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협력 모델

**(한주를 정리하며)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광역·초광역 연계를 통한 도시 재편, 3천만 외래객을 목표로 한 관광 국가전략, 140억 달러를 넘어선 K-콘텐츠 수출, 공연 한 번의 '조(兆)' 단위 파급효과까지. 2026년 연초 한국 문화정책은 분명 거대한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문화권 구축, 문화산업지구 지정, 대형 인프라 투자, 글로벌 관광도시 전략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모습은 문화가 산업·관광·도시 전략의 중심 축으로 격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문화는 도시의 이미지를 장식하는 요소를 넘어, 성장 전략과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구 이동과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수변·항만 재생, 슈퍼블록 도입, 산단 혁신공간 전환 등은 단순한 공간 미화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동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관광객 증가와 체류인구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이 원도심 공실을 채우는 사례는 문화·관광이 지역 활력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점도시와 권역 단위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의 이면에는 분명한 균열도 존재한다. 대형 문화인프라는 늘어나지만 운영계획의 투명성 논란은 반복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요구로 이어진다. 축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주민 참여율은 하락하고, 10억 원 이상 대형 축제는 증가했음에도 방문객 1인당 지출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연·전시 시장에서는 특정 장르로의 쏠림이 심화되어 지역 장르 생태계가 위축되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정책 결정의 책임은 분산되어 있는 반면, 실행 부담은 현장 인력에게 집중된다는 지적 역시 반복된다. 양적 확대와 체감 성과 사이의 간극이 점차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K-콘텐츠의 산업적 성공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수출 규모와 고용 효과는 확대되고 'BTS 노믹스'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파급력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적 존중의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의 성과를 키우는 속도만큼 그것을 지탱할 제도적 신뢰와 국제적 관계의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확장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성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과 '기초'에 있다. 청년 유출과 단년도 지원 중심 구조는 창작의 세대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복지 기준의 모호함은 예술인 사각지대를 확대한다. 1인 가구 35% 시대, 개인 단위로 재편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통합돌봄과 같은 생활 안전망조차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은 정책 설계의 단위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전달체계는 여전히 중앙-광역-기초의 위계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초 단위는 예산은 내려오지만 기획권과 설계권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생활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실행 구조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나 광역 차원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역과 기초가 조사-계획-실행-평가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행형 협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년도 공모 중심 체계를 넘어 다년도 지원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에 축적되는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투자에는 의무적 운영계획 공개와 중소기업·지역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확산이 아니라 정착,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문화정책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광역 전략과 기초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관광 3천만 시대와 K-콘텐츠의 성과도 지역의 미래로 환류될 수 있다. 이제 과제는 확장의 경쟁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이다. 속도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것은, 기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과연 도시의 규모 확장과 산업적 성과 제고에 집중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동네의 학교와 골목, 생활권에서 사람의 하루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있는가?**